

■ S-133 ■

*Klebsiella pneumoniae*에 의한 지역사회폐렴에서 속발한 간농양과 뇌농양

건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

*정인범, 이태희, 류기현, 임성민, 이한나, 표진실, 김용석, 김선문, 임익혁, 허규찬, 최용우, 강영우

서론: *Klebsiella pneumoniae*는 지역사회폐렴의 흔한 원인균주이다. 하지만 이 균주에 의한 폐렴에서 속발한 다수의 전이성 농양은 매우 드문 편이다. 저자들은 *Klebsiella* 폐렴에 속발하여 발생한 간농양과 뇌농양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. **증례:** 62세 남환은 2일간의 의식저하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내원시 급성병색을 보였으며, 의식은 저하되어 있었고, 청진상 양하폐야에서 악설음이 청진되었다.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치의 감소(1150/uL), 프로트롬빈시간의 증가(21.0sec),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(6.19 mg/dL), 간효소치의 증가(AST: 988 IU/L, ALT: 863 IU/L)를 보였다. 흉부사진상 양폐야에 침윤소견을 보여,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단하였다. 급성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장치를 연결하였고, 경험적 항생제로 levofloxacin과 clindamycin과 ceftriaxone을 투여하였다. 입원 시 시행한 뇌 MRI와 복부 CT에서 농양의 증거는 없었다. 그러나 5일 후 시행한 복부CT에서 10×10×6 cm 크기의 농양이 간우엽에서 관찰되었고, 뇌 CT에서도 우측 기저핵부와 우측 해마부 그리고 우측 전두엽의 내측부에 작은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, MRI상 다수의 뇌농양으로 진단하였다. 내원 시 시행한 혈액배양에서 *K. pneumoniae*가 동정되었고, 간농양에 대한 배액술이 시행되었으며, 배액된 농에서도 *K. pneumoniae*가 동정되었다. 5주간의 치료후에 환자의 전신상태는 호전되었고, 영상검사상 뇌와 간농양도 호전되었다. **결론:** *Klebsiella pneumoniae*는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그람음성세균으로 화농성 간농양의 주요 원인균이며, 지역사회폐렴의 흔한 원인 균주이기도하다. 드물게 이 균주와 연관된 폐렴에서 세균성 간농양을 포함한 다양한 전이성 농양이 보고되고 있다. 이 경우에 속하는 감염증은 간담도에 이상없이 발생한 간농양, 화농성 뇌막염, 뇌농양, 골수염 등이 있다. 저자들은 *Klebsiella* 폐렴에 속발한 간과 뇌의 전이성 농양의 성공적 치료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■ S-134 ■

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경동맥화학 색전술 후 발생한 폐색전 사망 1예

국립중앙의료원 내과

*전영도, 권혁춘, 최한설, 박상민, 최승준, 남승우

서론: 진행된 간세포암종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이 고식적 치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데, 경동맥 화학색전술 시술의 합병증으로는 색전술 후 증후군이 흔하고, 폐색전은 매우 드물다. 저자 등은 진행된 간암종 환자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 후 사망에 이른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. **증례:** 진행된 간암종을 가진 60세 남환이 세 번째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하였다.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, 수술 불가능한 Child-Pugh class A 간경변 상태였으며, α -태아 단백 수치는 950 ng/mL이었다.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상 간우엽 후방부에 4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, 좌측 측방엽에 1.5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. 혈관 조영 상 저명한 간내 동-정맥 단락은 관찰되지 않았고 우측 하부 가로막 동맥 혈관 조영 상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아드리아마이신 15 mL과 리피오돌 3 mL을 혼합하여 색전을 유도하였다. 시술 다음날 환자는 급작스런 호흡부전을 호소하였고, 말초 산소 포화도는 90% 이하로 감소하였다. D-dimer는 28.7 μ g/mL로 증가하였고 산소 공급에도 산소 포화도는 정상화되지 않았다. 단순 가슴사진 상 우측폐에 망상의 흔적이 증가하였고, 흉부 단층화 촬영 상 우하엽에 다발성의 iodized-oil 의 흔적이 관찰되어 리피오돌 오일로 인한 폐색전으로 진단되었다. 산소 및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부전은 악화되었으며, 1주 후 환자는 사망하였다. **고찰:** 본원에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후 비교적 드문 합병증인 폐색전을 경험하였는데, 폐색전의 위험 요소로는 종괴의 크기가 클 때, 간정맥을 침범하였을 때, 간경변, 선천성 심질환이나 만성 폐질환을 가졌을 때, 하부 가로막 동맥을 통한 색전을 유도할 때로 시술 전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, 하부 가로막 동맥을 통해 암종에 색전을 유도할 때에는 리피오돌 양을 가능한 줄이고 시술 후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